

특질들은 신이 주는 선물이다.

세계 봉사를 위해서 그것들을 제공하여라.

오늘 고조부인 아버지 브라마와 아버지 쉬바는 온 세상에 있는 고귀하며 행운아인 브라민 가문 전체에게 그들의 신성하고 알로키한 탄생에 대한 수천만 배의 많고 많은 축하를 보낸다. 그들은 이것과 더불어 진심에서 우러난 그들의 깊은 사랑과 영적인 사랑의 꽃들로 생일 축하 인사를 하고 있다. <3월 12일이 마하 쉬브 라트림 : 역주> 그들은 모든 브라민 영혼들 각자의 특질을 보고 아주 행복하다. 그들은 마음속으로, “와 자녀들! 와!”라고 노래 부르고 있다. 오늘 암릿 벨라 때부터 각자의 마음속에서는 행복의 그런 파도가 눈에 보였다: “와, 우리들의 아버지와 우리들의 알로키한 탄생일!” 아버지도 역시 암릿 벨라부터 자녀들 모두의 축하인사의 화환을 보며 행복했다. 전체 사이클을 통틀어도 이 탄생일은 오직 합류시대에만 축하된다. 심지어 황금시대에도 너희들은 알로키한 탄생일을 축하하진 못할 것이다. 그곳에서도 너희는 아버지와 자녀들이 똑같이 같은 날에 태어나는 그런 독특한 탄생일을 갖지는 못할 것이다. 지금까지 너희는 아버지와 그의 자녀들이 똑같은 날 태어났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느냐? 하지만 오늘 너희가 축하하고 있는 이 탄생일은 바로 너희 자녀들과 밥다다가 태어난 똑같은 날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와, 와 (경이롭다)”라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느냐?

오늘 암릿 벨라에 밥다다는 염주를 하나 만들고 있었다. 그가 어떤 염주를 만들고 있었겠느냐? 그가 만들고 있던 것은 108 구슬의 마지막 염주는 아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너희들 각자가 자기 이름이 들어있는지 여부를 궁금해했을 것이다. 그가 오늘 만들고 있던 염주는 수립의 초창기부터 파괴가 가까운 지금까지 불멸하는 존재라는 축복으로 불멸의 상태로 지내온 자녀들의 염주였다. 드라마에 의해서 그것도 그 영혼들의 고귀한 역할에 들어있는 것으로, 높은 중에서 가장 높은 신과 함께 신성한 활동들을 보고 듣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너희들 모두도 역시 이 역할을 맡았느냐? 밥다다는 너희를 브라민 왕조에 들어가게 만들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이 세상에서는 너희 브라민 영혼들 모두가 아주, 아주, 아주 행운아들이다. 왜 그렇겠느냐? 너희가 수천만 중에서 한 줌 정도밖에 안 되는 줄에서 있고, 그 중에서도 선택된 극소수에 들어있기 때문이다. 한쪽에는 세상의 수십 억 영혼들이 있고 다른 쪽에는 하나로 뭉쳐진 너희 브라민 영혼들 모두가 있다. 그래서 오늘 이 탄생일에 밥다다는 모든 자녀들의, 즉 너희들 중 일부만이 아니라 전체의 모든 자녀들의 각각의 별자리 운세를 보면서 특질들의 염주로 너희에게 화환을 걸어 주고 있었다. 너희가 새로 온 영혼이든, 처음부터 있었던 영혼이든, 중간에 온 영혼이든, 너희는 특별하고, 또한 언제나 특별할 것이다. 전체 사이클 내내 너희는 특별할 것이다. 전체 사이클 동안 세계의 영혼들 모두가 너희 고귀한 영혼들이 위대하다고 생각하며 바라볼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 각자는 자기 자신의 특질들을 알고 있느냐? 그것들을 알고 있느냐? 너희들 각자가 본인의 특질을 아느냐? 만일 그렇다면 한 손을 들겠느냐? 아주 좋다! 너희는 그 특질들로 무엇을 하느냐? 너희는 그 특질들이 아주 좋다는 것을 알고, 그것들을 아주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는데, 그러나 그 특질들로 너희는 무엇을 하느냐? (봉사를 위해서 그것들을 사용합니다.) 너희는 그것들을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지는 않겠지? 특질들은 신이 주는 선물이다. 신에게서 오는 선물은 한결같이 세계 봉사를 위해서 제공된다. 특질들이 부정적인 방식에서 사용된다면, 그것들은 교만이라는 형태를 취한다. 이렇게 되는 것은 이 지식의 길에 들어온 후, 브라민 생애 들어온 후, 너희가 아버지에게서 여러 가지 특질들을 얻는데, 아버지에게 속함으로써 너희는 특질의 보물들에 대한 권리들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그저 한두 가지 특질이 아닌, 많은

특질들을 가진다. 기념물에서도 역시 너희의 특질들은 천상의 16도로 완전하다고 언급된다. 그러므로 단지 16만이 아니다; 16은 가득하고 완전함을 의미한다. 16은 모든 미덕들로 가득하다는 뜻이다. 가득하다는 것은 세세한 측면에서 완전히 악덕 없는 존재라는 것이다. 단어로는 “완전히 악덕 없는”이지만, 완전함에는 여러 가지 세부적인 사항들이 있다. 이렇게 모든 브라민은 아버지에게서 유산으로 특질들을 받는다. 그러나 너희는 그 특질들을 익혀서 자기 것으로 만든 다음, 그것들을 봉사에 써야 한다. 이것은 나의 특질이 아니라, 신이 주는 선물이다. 너희가 그것을 신에게서 온 선물이라고 여길 때, 그 특질에는 신의 힘이 가득할 것이다. 그것이 너희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너희들은 교만과 모욕받는 것, 둘 다를 직면해야 한다. 지식, 요가, 봉사, 너희의 지각, 또는 어떤 미덕에 대한 어떤 종류의 교만을 갖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는, 그런 영혼들은 아주 빨리 자신이 모욕을 당했다는 것을 느낄 것이라는 점이다. 이렇게 너희는 특별한 영혼들이다, 즉 너희는 신이 주는 그 선물들에 대한 권리를 가졌다.

자, 오늘 너희 모두는 밥다다의 탄생일을 축하하려고 왔다, 그렇지? 밥다다도 너희 모두의 생일을 축하하려고 왔다. 너희는 그저 밥다다의 탄생일을 축하하지만, 밥다다는 모든 브라민 가문의 생일을 축하하려고 왔다. 너희가 이 나라에 있거나 멀리 떨어진 외국의 어느 한 곳에 앉아 있던 상관없이, 브라민이 되어 브라민 가문에 속하는 영혼이라면, 밥다다는 너희의 생일을 축하하고 있다. 너희들도 그것을 축하하고 있다. 너희들은 모든 이의 생일을 축하하고 있다, 그렇지 않느냐? 아니면 그것은 단지 여기 앉아 있는 이들의 생일일 뿐이냐? 너희들은 모든 이들을 기억하겠지? 보아라, 너희가 그들의 생일도 역시 축하하고 있는지를 보려고 모든 이가 지켜보고 있다. 그래서 너희는 모든 이의 생일을 축하하고 있다. 모든 이를 축하하고, 축하하고, 또 축하한다! 축하한다는 것은 그런 열성과 열의를 가졌다는 뜻이다. 이렇게 너희들은 마음속에 그런 열의를 갖고 있다, 그렇지 않느냐? 와! 우리들의 알로키한 생일! 와!

이처럼 오늘 암릿 벨라 때부터 너희 모두는 마음속으로 너희의 생일에 대한 많은 열성과 열의를 가졌다. 밥다다는 카드들도 보았다. 너희들은 눈으로 그것들을 보지만, 밥다다는 너희가 그것을 보기도 전에 미묘한 형태로 그것들을 먼저 본다. 밥다다는 너희 모두의 마음속에, 자신의 열의를 보여주려는 열성과 열의를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를 보았다. 오늘날에는 이메일이 아주 저렴하다. 그래서 모든 이가 이메일을 많이 보낸다. 그것이 이메일, 카드, 편지, 너희 마음속의 생각 등 어떤 것이든 전부 밥다다에게 도달된다. 너희가 만일 암릿 벨라 때부터 모든 곳에서 온 모든 카드, 편지, 이메일, 생각들을 전부 모은다면, 너희는 그것들을 그저 보기만 하면서도 스스로 많이 즐길 것이다. 이것은 독특한 전시회다. 너희는 생일에 미래의 소원을 빈다. 생일이면 너희의 나이가 늘고,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1년을 전진해온 것처럼, 마찬가지로 너희의 노력과 너희의 더없이 귀중한 생활에서, 너희 마음속에, 즉 너희들의 생각 속에서, 지각의 판단력에서, 너희의 말에서, 다른 이들을 1초 만에 성공의 화신으로 만드는 힘을 가지는 데서, 관계와 연결이라는 측면에서, 너희와 접촉하고 있는 모든 이들이 매 순간 이러저러한 성취를 경험하게 해주어라. 앞으로 올 한 해를 위해 너희는 그런 결심의 맹세를 했느냐? 쉬브 자안티의 날, 브라민 영혼들 모두에게는 두 가지 목표가 있다: 하나는 그들 스스로에게 하는 약속이고 다른 하나는 아버지를 드러내는 것발을 계양하는 것이다. 너희 모두가 마음속에 이 두 가지 특별한 목표를 가졌다. 그래서 밥다다는 너희가 한 모든 약속들에 대한 과거의 기록부를 보았다. 해마다 너희들은 각자의 생각과 말로 올바른 방식으로 약속을 하였다. 너희는 아주 잘 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즉 오늘 이 생일을 축하하고 나서는, 특히 한 구절에 밑줄을 그어 강조하여라. 그것은 흔히 쓰이는 상투적인 구절이다. 새로운 구절이 아니다. 그 구절은 “변함없는 결심”이다. 가끔씩만 결심을 하고, 어떨 때는 부주의함이 있는 결심을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의 결심이 한결같은 때, 그것을 나타내는 표시는 자신, 봉사, 너희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모든 생각, 말, 행위에 100%의 성공이 있을 것이다. 브라민들이 이 모든 것에서 끊임없이 성공하지 못하는 한, 드라마에 따라서 계시도 역시

자연된다. 성공은 계시의 기반이다. 말 한 마디 한 마디가 모두 성공으로 채워지게 하여라. 생각도 모두 성공으로 채워지게 하여라. 이런 이유로 오늘 이 기념물에서 스스로를 구루라고 칭하는 이들은, 그들의 모든 말이 진실의 말씀이라고 일컬어지는 구루로 언급된다. 설령 그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해도, 그들을 따르는 신봉자들은 “그것은 진실의 말씀이다”라고 할 것이다. 그러니 이것은 너희들의 약속의 기념물이다. 너희들이 황제이며 위대해지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모든 말이 진실의 말씀인 구루”라고 불리는 것이다. 즉, 그것은 그들이 위대한 영혼이라는 뜻이다. 결코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것이 나의 의도는 아니었지만, 내가 그런 말을 했지”, 또는 “그 말이 그냥 나와 버렸어”. 말이나 감정이 아무런 동기 없이 그냥 나오지는 않는다. 그것은 너희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 뿐이다. 때때로 너희들은 그냥 나오는 말을 하기도 한다. 그 말들이 왜 나왔겠느냐? 왜냐? 그 말들이 그냥 나올 만큼, 너희가 그 정도로 통제력이 없느냐? 그 일은 그냥 일어나 버렸다.... 그렇다면 너희가 왕이 아니라는 것이냐? 그것은 너희가 몸의 감각들 중 어떤 것에 영향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렇지 않느냐? 이런 이유 때문에, 말이 그냥 나오거나 다른 뭔가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올해는 축하와 더불어 “만사 모든 것에 대해 한결같은 결심”이라는 말에도 밑줄을 그어 강조해라. 오늘은 너희의 생일이다. 따라서 밥다다는 오늘은 너희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겠지만, 밥다다가 모든 이의 차트에 써놓았고, 마지막 만남 때 너희에게 그것을 말해줄 것이다. 오늘 바바는 그저 축하만 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보름 후에 너희들에게 말해줄 것이다. (밥다다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신다면, 그것을 15일 안에 바로잡을 것입니다. - 다음 밥다다 미팅은 3월 28일) 좋다, 만일 너희가 15일 내에 그것을 고치겠다는 말을 먼저 한다면, 바바가 너희들에게 말해줘도 되겠다. 만일 그 변화가 15일 안에 일어난다면, 밥다다가 무엇을 할지는 너희가 알 수 없다. 바바가 그것을 너희들에게 말해줘야 하겠느냐? 너희들은 15일 안에 변할 것이냐? 너희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것은 좋다. 판다바들은 이렇게 할 것이냐? 바바가 너희들에게 말해줘야 하겠느냐? 그 말을 듣기는 쉽지만, 너희가 그것을 하겠느냐? 그때는 너희가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밥다다는 뒤에 앉아 있는 이들 모두, 어머니들 모두, 선생들, 2중의 외국인들에게 물었고, 모든 이가 손을 흔들었다.) 너희 모두는 손을 아주 잘 든다.

세 그룹의 2중의 외국인들이 있다, 그렇지 않느냐? 내향적 그룹, 마스터나(도취된) 그룹, 샷티(강력한) 그룹이다. 내향적인 그룹은 손을 들어라! 내향적인 그룹은 아주 수가 적구나. 두 번째는 도취된 (마스타나) 그룹이다. 좋다, 마스타나 그룹에 속하는 이들은 일어서라! 너희는 변함없이 도취된 채 지내는 이들이다, 그렇지 않느냐? “마스타나”란 무슨 뜻이냐? 한결같이 도취되어 있는 이들이다. 세 번째 그룹은 샷티다. 샷티 그룹은 강력하겠지? 너희들은 아주 좋은 이름을 택했다. 초창기에 뱃티를 할 때, 너희는 어떤 그룹 이름이 있었느냐? 신성한 단합(Divine Unity), 마노하르 파티(Manohar Party), 지고의 파티(Supreme Party). 이름들이 참 아름답지 않느냐? 그러니 이것들 역시 아주 좋은 그룹들이다. 이름을 기억한다면, 그때 너희는 이름과 함께 너희의 과업도 기억할 것이다. 앗차, 2중의 외국인 쿠마르들은 일어서라! 앗차, 이것은 쿠마르들의 그룹이다. 너희는 잘했다. 밥다다는 2중의 외국인들이 원기를 잘 회복했다는 아주 좋은 소식을 받았다. 밥다다는 진심으로 너희를 축하하고 또한 바바가 오늘 강조한 내용을 모든 그룹들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다.

많은 2중의 외국인 선생들이 있다. 선생이 된다는 것은 아주 아주 고귀한 행운의 표시인데, 왜냐하면 밥다다는 선생들을 구루-바이(구루의 자리를 물려받도록 훈련받는 수제자)로 여기기 때문이다. 그는 너희를 대등하다는 시선으로 보는데, 왜냐하면 너희가 아버지의 자리에 앉기 때문이다. 선생들은 이런 권리를 받는다, 그렇지 않느냐? 구루가 자기의 옥좌를 가지듯이, 이 멀리 옥좌도 다른 이들이 멀리를 소화해서 읽을 수 있게 해주고, 멀리를 듣게 해주는 옥좌이다.

너희는 멀리를 그저 읽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그것을 혼습하도록 고취한다. 밥다다는 너희 선생들에게 구루-바이의 옥좌를 주었다. 외국에서는 너희 모두가 아주 금방 옥좌에 앉혀지는 걸로 보였다. 밥다다는 기쁘다. 책임의 왕관을 쓴다는 것, 용기를 유지한다는 것도 사소한 일이 아니지만, 구루-바이가 된다는 것은 아버지와 대등해지는 것이다. 사실 모든 이가 아버지와 대등해져야 하지만, 교사들은 특히 더 책임의 왕관을 가졌다. 밥다다는 교사들의 집회를 아주 좋아한다. 그러나 오늘의 특별한 용어는 “한결같은 주의”이다.

앗차, 바라트의 교사들아, 일어서라! 바라트의 교사들도 이에 못지 않다. 이렇게 너희는 바바가 교사들을 어떤 시선으로 보는지 들었느냐? 그래서 수업을 진행하고 멀리를 읽는 이 자리는 대단한 행운의 자리다. 너희들은 아주 아주 아주 운이 좋은데, 왜냐하면 몸의 형태를 가지고 도구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느냐? 앗차. 다디들 중 하나는 외국에 가 있고, 다른 한 명은 마두반에 있지만, 모든 장소에서 물질적인 형태로 도구인 이들은 선생들이다. 또는 심지어 판다바들도 도구가 된다. 단지 교사들만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시니어 형제라고 부르는 판다바들까지 있다. 판다바들은 아주 많이 필요하다. 처음부터 과업이 지속되어온 것은 삭티와 판다바, 양쪽 모두와 함께였다. 비록 판다바들은 몇 명 안 되는 소수였지만, 비슈와 키쇼르가 있었다. 아난드 키쇼르와 비슈와 키쇼르가 처음부터 있었다. 그러니 너희들은 판다바들과 동반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느냐? 하지만 대다수는 도구가 된 교사들의 동반이다. 너희는 중추다. 너희들은 심지어 교사들에게도 중추다. 각자는 자기만의 배역을 갖고 있다. 그렇지만 외국에서는 심지어 판다바들도 교사가 되는 특별함이 있다. 판다바들이 교사가 되는 경우가 바라트에서는 거의 없지만, 밥다다는 항상 선생들은 자기들의 모습을 통해서 아버지의 비전을 보여주는 이들이고, 자기의 모습을 통해서 뚜렷한 미래를 보여주는 이들이라고 말한다. 그러니 너희는 그런 선생들이다, 그렇지 않느냐? 누가 너희를 보든 그들도 밥다다의 부양을 경험하게 해주어라. 신의 미덕들과 신의 힘들이 너희 얼굴에서 보이게 하여라. 너희가 쓰는 말을 통해서 그가 보이게 하여라. “아무개 교사가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아니다. 밥다다는 교사들의 특색 있는 외모를 통해서 이런 경험을 주었다. 모든 이가 아버지와 연결되게 해주는 것이 교사들의 임무다. 매 순간 각자의 마음에서 “바바”라는 단어가 나오게 하여라.

아주 좋은 그룹들이 만들어졌는데, 왜냐하면 그들 각자가 원기를 회복하는 좋은 경험을 했기 때문이다. 그룹들의 결과가 좋았다. 그것은 좋다.

그들의 생일 축제를 축하하고 있는 고귀한 브라민 영혼들 모두에게, 그들의 알로키한 생애 변함없이 알로키한 과업을 행하고 있는 고귀한 영혼들에게, 다른 누구도 아닌 아버지 한 분(에크나미)만 변함없이 기억하며 모든 보물에 대해 알뜰함의 화신인 자녀들에게,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모든 축복과 유산을 드러내며 열성과 열의를 지속하는 자녀들에게, 그런 자녀들에게, 그들의 알로키한 탄생에 대한 밥다다의 축하와 사랑과 기억과나마스테.

다디들에게: (다디지가 밥다다께 그의 탄생일에 대해 많고 많은 축하를 드림.) 오늘 너희 모두가 염주에 들어 있었다. 바바는 염주를 기억했다. 수립의 초창기에 너희 보석들은 그 염주의 구슬들이었다. 너희가 수립을 위한 도구들이었던 것은 좋다. 너희는 부양의 도구들이 되었고, 이제 너희는 아버지와 함께 갈 도구가 될 것이다. 밥다다가 혼자서 문을 열겠느냐? (아닙니다.) 그들 모두가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문들을 열 수 있게 오십시오.” 그러나 너희들은 몸의 형태를 가지고 도구가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봉사를 완수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육신의 형태로 너희가 맡은 과업을 완료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에는 모든 이가 누구를 보느냐? 모든 이의 시선이 누구에게로 향하느냐? 그것은 너희 모두에게 쏠린다. 모든 이의 시선이 도구가 된 너희 모두에게 쏠린다. 바바는 모든 이들을 그의 눈 속에 앉혀 놓았다. 아버지의 시선은 좁지 않다. 그는 무한한 시선을 가졌다. 그래서 너희 모두가 그의 시선에 들어있다. 너희 모두는 그의 눈의

보석들이다. 아주 좋다. 너희는 각자의 배역을 연기하고 있으며, 그래야 하는데, 너희가 드라마에 묶여 있기 때문이다. 너희는 그것이 마음에 드느냐? 그것은 아주 좋다.

축복: 일시적 지원들은 옆으로 미뤄두고, 정확한 노력가로서 아버지 한 분만을 너희의 지원으로 삼아라.

노력한다는 것이, 너희가 자신의 노력을 자신의 지원으로 만듦으로써, 계속해서 같은 잘못을 되풀이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정확한 노력이란 진정한 인간이 되어 그의 수레가 작동하게 만든다는 뜻이다. 이제는 일시적인 지원들을 손에서 내려놓아라! 몇몇 자녀들은 아버지를 지원으로 삼지 않고 유한한 사물들을 지원으로 삼는다. 너희의 성질, 산스카라, 역경 등의 일시적인 지원은 다만 전시용일 뿐이고, 기만적인 것이다. 한 분 아버지의 지원만이 너희의 보호의 장막이다.

슬로건: 지식으로 충만한 사람이란 멀리에서도 마야를 알아보고, 자신을 강력하게 만드는 이다.

\*\*\* 옴 산티 **OMSHANTI** \*\*\*